

각국의 품질보증 마크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상품에는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들 보증마크는 정부나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시험검사를 한 후에야 부착을 허락하기에.....○
-좋은 상품임을 믿고 고르는데 기준이 되고 있다.....○
-많은 양의 외국산 물품이 수입되어 상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 요즘 국내외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종.....○
-품질보증마크의 종류와 그 특성을 알아봄이 필요하겠다.....○



「KS」마크.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국공업규격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에 부착된다. 「KS」마크는 공산품의 칫수·성분·재질 등을 규격화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제품에 붙일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으므로 일단은 수준급의 제품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Q」마크. 생활용품·화학분석·의류·원사직물·유화·전기전자시험검사소 등 6개의 민간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한 품질보증제도. 「Q」마크 제품의 특징은 불량품이거나 구입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6개 시험검사소나 제조업체에서 책임지고 현품으로 바꾸어 주거나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P」마크. 정부가 권장하는 공장품질관리 기준에 합격된 우량공장의 생산제품에 대해 공업진흥청이 부여하는 품질등급과 가공기술의 품질표시이다. 한 제품이 「KS」표시와 「P」자를 같이 표시하고 있으면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불량품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업진흥청 소비자보호과에 연락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G」마크.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제품 출고전에 정부의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된 제품에 부착한다. 이 마크는 공산품 가운데 압력밥솥·보온용기·유아용 자전거·물놀이기구·어린이용 그네·저울 등 특히 안전성이 강조되는 43개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마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제조기준에 의하여 정부가 제조허가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기용품에 부착한다.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등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열」마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열사용 기자재를 검사하고 기준 이상의 제품에 한하여 부착한다.



「UL」마크.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안전시험기관인 보험업자시험소(UL)에서 인가하는 품질표시로 이를 획득하지 못하면 미국시장에서 팔 수 없다. UL은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시험, 검사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UL인증업무를 겸하고 있다.



「FCC」마크.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규격으로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 제품에 부착된다. 무선전화기·TV·라디오·전자레인지 등은 이 마크가 없으면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JIS」마크. 일본공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으로 우리나라의 「KS」마크와 비슷하다.



「BS」마크. 영국규격협회의 품질표시로 가스조리대나 조명설비에 「BS」마크가 있으면 안심해도 된다.



「VDE」마크. 독일전기기술자협회가 제정한 품질규격으로 부착 상품은 정부가 품질을 공인해준다.



「CEE」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이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규격



「NF」마크. 프랑스 표준규격.



「JIS」마크. 자유중국 국가표준규격



「ULC」마크. 캐나다 보험업자 시험소에서 생명, 화재, 사고방지를 위한 기구, 구조물, 재료시험 등을 거쳐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



「FM」마크. 미국의 공장상호 보험기구 연구시험소에서 소화기기, 위험물 설비, 전기 설비 및 건축자재 등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마크.

이밖에 방화관련 제품의 인증마크로서 영국의 「LPCB」마크, 캐나다의 「CSA」마크, 일본의 「J」마크 「S」마크 「JTCM」마크, 스웨덴의 「SEMKO」마크, 스위스의 「SEV」마크, 네덜란드의 「KEMA」마크, 영국의 「BEAB」마크 등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에서 방화관련제품중 성능시험 및 공장심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FILK」마크를 부여하고 있고,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마친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하여



「검」마크를 부착 시판하고 있다.

바코드(Bar Code 공동상품코드)란?

제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중간판매실적이나 재고관리, 시장조사 등을 위한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기 모양으로 그 상품의 정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써 수입상품의 포장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막대기와 수자가 표시된 것이 바코드다. 여기에는 제조 또는 유통업체가 제품의 포장에 8~16개의 막대기로 생산국, 제조업체, 상품종류, 유통경로 등을 인쇄하게 된다. 판매 즉시 판매량 금액 등 각종 정보를 집계할 수 있어 이른바 판매시점 정보관리 즉, POS(Point of sales)를 쉽도록 한다. 또 재고 관리가 용이하고



◇ 자동창고운영에 직접 응용되는 등 분류시스템에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바코드의 체계는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EAN(유럽상품번호)와 미국 및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UPC(통일상품코드)로 크게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AN으로부터 국별코드인 KAN(한국상품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 KAN코드의 총자리수는 13개로 왼쪽부터 차례로 국별코드 3자리(880), 제조업체코드 4자리, 상품품목코드 5자리, 자동판독장치에 의한 오류를 막기 위한 코드 1자리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동상품코드는 제조업체코드라고도 불리는데 등록 대상은 상품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자체상표나 고유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 같은 상품을 제조하는 가맹점, 수입업자, 세트상품 제조 및 판매업자 등이다.

유통업자의 경우 공동상품코드의 앞에 1~3자리의 별도 코드를 붙여 유통상품코드로 사용한다. 또 검, 담배 등 소형상품의 경우 단축형인 8자리가 쓰이기도 한다.

